

#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에 대한 중요도 분석

변 병 설\*<sup>+</sup> / 신 선 미\*\*

## The Importance Analysis of Experts on Eco-Cultural Regeneration Index in Island Regions

Byungseol Byun\*<sup>+</sup> / Sunmi Shin\*\*

**요약** : 본 연구는 도서지역에 도입 가능한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를 도출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요도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도서지역의 현황과 개발 동향, 농어촌 마을 및 생태·해양도시를 기초로 하여 도서지역에 적합한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를 도출하였다. 생태적 재생 요소에는 토지이용, 교통체계, 건축물, 자원순환으로 분류하고, 문화적 재생 요소에는 보존 및 보전, 관광자원화, 기반시설로 분류하였다. 직업분야(학계, 공공기관, 민간회사), 전공분야(도서·해양, 문화·관광, 생태·환경, 도시계획)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차이분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에 대한 전문가 집단간 중요도 인식을 비교하였다. 토지이용부문은 학계와 공공기관 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전문가들은 생태문화자원의 보존을 통해 도서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핵심용어** : 도서지역, 생태적 재생, 문화적 재생

**Abstract** : This study induced ecological and cultural regeneration factors which can be introduced in island regions. And then, survey on recognition on importance was carried out with experts group. First of all, based on status and development trend of islands, farming and fishing village, ecological and marine city, eco-cultural regeneration factors fit to islands area were induced. Ecological regeneration factors were classified to land use, transportation system, buildings, and resources cycle. While cultural regeneration factors were classified to preservation, making tourism resources, and base facilities. This study compared recognition on importance by field such as occupation and major field. One-way ANOVA was used. As a result, this study compared recognition on importance about eco-cultural regeneration factors in island regions and suggested future direction.

**Keywords** : *Island Regions, Eco Regeneration, Cultural Regeneration*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3,000여 개가 넘는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도시 중심부와 떨어져 접근이 불편하며 내부 면적이 좁은 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내륙과 상이한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다.

과거 도서지역은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이었으나, 최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서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2000년대 이후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충족, 주 5일제 시행, 내륙관광의 포화상태로 인해 해양관광이 부각됨에 따라 도서지역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였다(박소연, 2010). 이러한 추세는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

본 연구는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교신저자·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E-mail: byun@inha.ac.kr

\*\* 인하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석사졸업·E-mail: 01090458921@daum.net

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는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등을 중심으로한 광역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은 도서 및 해양지역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지역개발정책은 도서지역의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관광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어 도시개발과 같은 형태인 대규모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난개발로 인해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을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은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지역의 중요한 자원이다. 또한 도서지역 주민에게는 경제적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을 최대 보존 및 보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도서지역에 적용 가능한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를 도출하여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과 관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전문가 집단별 중요도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요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라, 도서지역은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본 연구는 도서개발촉진법을 기준으로 도서를 정의한다.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에는 도서지역 내 생태·문화자원을 이용하여 물리적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도서지역의 현황과 개발 동향, 농어촌 마을 및 생태·해양도시를 기초로 하여 도서지역에 적합한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를 도출하였다. 둘째,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과 관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요도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문가집단의 중요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에 대한 전문가 집단간 중요도 인식을 비교하였다.

## 2. 이론적 고찰

### 2.1 도서지역의 재생 개념

도서지역의 재생 요소를 제시하기에 앞서, 재생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재생의 정의는 적용 대상과 방법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고, 학자에 따라 이론적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재생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기존에 정립한 도시재생의 정의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재생의 조작적 정의를 하고자 한다.

재생은 재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도시의 발전과정에 있어 산업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도시중심부가 노후화되어 사회·경제적 요인이 쇠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논리에 의해 기존의 노후시설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재개발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방식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즉, 도시재개발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구조를 깨끗하고 보기 좋게 정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도시공간뿐만 아니라 기존 거주민의 삶을 무시하거나 그동안 조성된 지역문화를 훼손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생은 재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재생은 쇠퇴한 지역을 물리적 모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던 거주민의 삶과 독특한 지역문화를 유지하면서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촉진을위한특별법」의 제정으로

로 도시재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도심활성화와 노후시가지의 정비를 통해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낙후된 생활환경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 정비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본 연구에서의 재생은 도서지역 내 생태자원 및 문화자원을 고려하여 생태문화적으로 재생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도서지역은 취약한 접근성으로 인해 육지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 취약한 산업구조, 노령화 문제,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유출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격절성으로 인해 자연생태계와 독특한 생활문화가 보전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도서지역을 방문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관광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재생을 위해서 섬 특유의 자연생태계와 독특한 생활문화를 파악하여 재생요소를 살피볼 필요가 있다.

## 2.2 선행연구 고찰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생태적 재생에 관한 연구는 환경친화적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생태자원의 보전 측면과 환경친화적 해양개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적 재생에 관한 연구는 해양지역의 관광활성화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의 맥락에서 문화자원의 보전 측면과 도서지역의 관광활성화 측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도서지역의 생태적 재생을 위해서는 해양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개발과 자원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인위적인 개발 보다는 도서 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변병설·전하나, 2008). 도서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이용한 독특한 콘텐츠를 중시한 관광개발, 정주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서개발과 관광개발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도서지역의 생태환경 보

전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김영준, 2007).

또한 자연친화형 해양관광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중요하고(박소연, 2010) 해양자원 훼손이나 오염될 경우 복원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개발을 지양하고 자연조건의 효용을 살릴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박소연·신선미·변병설, 2009 ; 김선중, 2008).

도서지역의 문화적 재생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생태·문화적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도서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하거나 그 연관성을 발굴하여 생태관광과 접목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홍선기, 2007 ; 양희은, 2010).

살고 싶은 어촌이 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의 개선과 소득증대 방안이 필요하며, 가고 싶은 바다 조성을 위해서는 연안 어촌의 경관, 환경의 질, 전통 문화의 유지, 지역 특성화 작업 등을 통한 매력도 증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김성귀·홍장원·이성우·최지연, 2007 ; 염미경, 2000).

지금까지 도서지역의 개발은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을 하지만 구체적인 재생 요소는 전무하다. 또한 새로운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은 도서지역의 생태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태문화적 재생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도서지역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주환경, 문화환경, 경제적 환경이 낙후되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태문화자원은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지역의 중요한 자원이다. 또한 도서지역 주민에게는 경제적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3. 분석의 틀 정립

본 연구는 도서지역에 도입 가능한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를 도출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요도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 3.1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 도출과정

도서지역의 현황과 개발 동향, 농어촌 마을 및 생태·해양도시를 기초로 하여 도서지역에 적합한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를 도출하였다.

생태적 재생은 생태도시 및 해양관광지 조성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검토하여 토지이용, 교통체계, 건축물, 자원순환의 4대 부문으로 정리하였다.

토지이용부문은 도서의 특성, 지리적 위치 및 도서내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파괴를 가급적 최소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생태공간구조, 생태환경 보존, 생태환경조성을 중시하여야 한다(정석중·이미혜, 2004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

교통체계부문은 도서지역의 생태적 재생을 위해 녹색교통 및 보행공간 중심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 의존적인 적색교통에서 자전거와 보행과 같은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도서지역 내 관광지간 접근성을 고려하여 교통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관광객들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 관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가용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자전거 및 전기차 등의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건축물부문은 대부분의 인간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탄소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거나(박현신, 2010), 자연채광 고려, 건물녹화 조성, LED 조명 설치, 절수기기 및 자동절전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자원순환부문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수자원 확보와 하수 및 쓰레기 처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은 농도 오수를 처리 후, 중수와 빗물을 활용하고, 자연배수체계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생태계의 수용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박현신, 2010). 폐기물은 매립이나 소각으로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 재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여 자원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재생은 농어촌마을의 현황과 관광개발 동향을 고려하여 보존 및 보전, 관광자원화, 기반시설의 3대 부문으로 정리하였다.

보존 및 보전부문은 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발굴하여 문화유산을 자료화하고 원형 보존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김성귀, 2004). 또한 지속적인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도서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관광자원화부문은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전통적인 도서문화자원의 보전을 통해 도서지역 특유의 생태문화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한국농촌연구원, 1997 ; 해양수산부, 2001). 따라서 도서지역의 생활문화를 유지하여 온 생물상, 특히 천연기념물의 자연자원과 문화경관의 자원을 생태적인 관점에서 조사하고 환경문제를 분석하여 도서지역의 생태적 또한 문화적 수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홍선기, 2007).

기반시설부문은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관광객의 관광활동 증진을 위해서 문화·편의시설을 정비 및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은 이용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며 생태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지속적인 관리와 도서의 특성을 살린 스토리텔링화한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

#### 3.2 설문조사의 대상 및 방법

도서지역 재생 요소의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리커트식 7점 척도로 매우 낮음의 1부터 매우 높음의 7점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서지역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로서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설계하였다.

설문조사는 도서지역 생태·문화적 재생과 관련한 전문가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

가 표본추출은 인하대학교 도시계획과·문화경영학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의 교수 및 연구원, 인천시청 관광진흥과·도서발전지원과·도시디자인추진단 및 옹진군청 도서개발과·서해5도 특별지원단·관광문화과·환경녹지과·해양수산과 등의 공공기관, 에코아이, 서영엔지니어링의 민간회사를 대상으로 목적표본추출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설문대상자의 이메일(E-mail)을 통해 설문을 요청하고 회수하였다.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15일간 총 140부의 설문이 배포되었고 전원 회수되었으며 설문조사 분석은 PASW Statistics 18.0을 활용하였다.

조사분석방법은 전문가 집단의 중요도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에 대한 전문가 집단간 중요도 인식을 비교하였다.

## 4. 실증분석

### 4.1 전문가집단의 특성

본 연구는 도서지역 생태문화적 재생요소에 대한 전문가 중요도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성별, 연령대, 직업, 전공분야로 전문가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설문자의 연령대는 30대가 42.9%로 설문조사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대로서 전문가 집단의 중요도 인식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직업분야는 공공기관(공무원, 공기업) 39.3%, 학계(교수, 연구원) 35.7%, 민간회사(엔지니어링, 건설회사) 25.0%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어 대체적인 전문가 집단의 특성이라고 판단된다.

전공분야는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였으며 도서·해양분야, 문화·관광분야, 생태·환경분야는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참여하였다. 전문가집단별 생태문화적 재생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

항목	내용	빈도	%
성별	남성	101	72.1
	여성	39	27.9
연령	20대	29	20.7
	30대	60	42.9
	40대	35	25.0
	50대 이상	16	11.4
직업	학계 (교수, 연구원)	50	35.7
	공공기관 (공무원, 공기업)	55	39.3
	민간회사 (엔지니어링, 건설회사)	35	25.0
전공 분야	도서·해양분야	25	17.9
	문화·관광분야	30	21.4
	생태·환경분야	23	16.4
	도시계획 분야	62	44.3
표본수		140	100

### 4.2 도서지역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 선정

중분류 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점수 이상이면 요소로 도출하고 대분류 전체 항목의 평균 점수 이상의 요소를 도출하여 중요 요소로 선정하였다. 중분류 별 평균점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대분류의 평균 점수를 함께 적용한 이유는 중분류 별로 평가 받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요소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중분류 요소들은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 적용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요도에서 선정되지 못한 요소들은 각 도서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 조사를 한 이유는 중요도를 알기 위한 것이며 요소를 누락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우선 중분류 별 평균 점수 이상의 요소를 도출

하였는데 토지이용부문의 전체 항목의 평균 점수는 5.16점, 교통체계부문은 4.56점, 건축물부문은 4.72점, 자원순환부문은 4.92점, 보존 및 보전부문은 5.34점, 관광자원화부문은 5.27점, 기반시설부문은 4.89점으로 나왔다. 이러한 선정 기준을 반영하여 총 68개의 재생 요소 중 42개의 재생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다음, 대분류 전체 항목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점수 이상이면 중요 요소로 도출하였는데 생태적 재생의 평균 점수는 4.93점, 문화적 재생의 평균 점수는 5.15점으로 나왔다. 대분류의 전체 평균을 반영하여 평균점수 이상을 중요 요소로 도출하였다.

### 4.3 전문가 집단의 중요도 인식

#### 4.3.1 직업분야에 따른 차이

직업분야 간 중요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토지이용부문과 보존 및 보전부문의 대부분의 요소에서 직업분야간 중요도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토지이용부문에서는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 고려 요소와 일조량·채광 고려 요소와 Green-Blue 네트워크 조성 요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요소가 직업분야간 차이를 보였다. 학계는 토지이용 분야에 대한 중요도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공공기관은 학계와 민간기업 보다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학계와 민간기업은 도서지역 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의 특성, 지리적 위치 및 도서내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파괴를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하고, 토지이용 시 생태공간구조, 생태환경 보존, 생태환경조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부문은 직업분야 간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보존 및 보전부문의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생태문화자원의 DB 구축, 도서의 특성이 담긴 해양경관 보전 요소에서는 직업분야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Scheffe의 다중검정치 사후검정 결과,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요소는 학계와 공공기관 간 차이가 있으며 도서의 특성이 담긴 해양경

관 보전 요소는 학계와 민간회사 간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생태·문화자원의 DB 구축 요소는 학계, 공공기관, 민간회사 간 중요도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학계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 4.3.2 전공분야에 따른 차이

전공분야 간 중요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교통체계부문의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 설치 요소, 보존 및 보전부문의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형태·재료·색채 도입요소, 기반시설부문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건립 요소에서 전공분야간 중요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교통체계부문은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 설치 요소에서 문화·관광 분야와 생태·환경분야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생태·환경분야의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의존적인 적색교통에서 자전거와 같은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보존 및 보전부문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형태·재료·색채 도입 요소에서 전공분야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화·관광, 생태·환경,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은 도서지역의 문화적 재생을 위해서 지속적인 경관자원의 관리를 통해 도서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문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건립 요소와 수변감상을 위한 전망테크 조성 요소에서 전공분야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건립 요소에서는 문화·관광분야와 도시계획분야 간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문화관광분야의 전문가들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여가활동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기반시설부문의 수변감상을 위한 전망테크 조성 요소에서는 도서·해양분야, 문화·관광분야와 생태·환경, 도시계획분야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생태·환경,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들은 도서지역의 생태·문화자원 그 자체로 매력

적인 관광자원일 수 있지만, 전혀 가공되지 않은 으며, 관광객이 관광 활동하는데 있어 관광자원의 생태·문화자원만으로는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없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2. 직업별 평균 차이

중분류	소분류	세부 요소	평균	학계	공공기관	민간기업	F
토지 이용	생태공간구조	기존 지형 보존 최대화	5.70	6.18	5.31	5.63	6.708*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 고려	5.36	5.48	5.24	5.40	0.556
		경사도, 표고, 녹지자연도 등 고려	5.33	5.74	5.05	5.17	5.378*
		일조량, 채광 고려	5.11	5.28	5.00	5.06	0.727
	생태환경보존	기존 산림·해안의 원형 보존	5.85	6.34	5.51	5.69	8.921**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고려한 식재	5.53	5.88	5.22	5.51	4.484*
		향토 수종 및 자생종 식재	5.56	5.90	5.31	5.49	3.824*
		생태 연결로 확보	5.34	5.68	5.07	5.29	3.739*
		생물 서식지 확보	5.41	5.78	5.15	5.31	4.412*
	생태환경조성	Green-Blue 네트워크 조성	4.96	5.14	4.71	5.09	1.722
교통 체계	녹색교통	자전거 도로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4.64	4.80	4.38	4.83	1.433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 설치	4.58	4.64	4.42	4.74	0.587
	보행공간	보행자전용지구 및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4.76	4.82	4.65	4.83	0.204
		보행자 도로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4.80	4.84	4.65	4.97	0.466
건축 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도입	5.14	5.08	5.18	5.14	0.064
		풍력에너지 시스템 도입	4.83	4.92	4.76	4.80	0.151
	에너지절약	자연채광 확보	5.51	5.76	5.20	5.66	2.780
		건물 녹화	4.74	4.72	4.67	4.86	0.189
		절수기기 설치	4.86	4.88	4.78	4.97	0.188
자동절전시스템 도입	4.85	5.06	4.53	5.06	2.272		
자원 순환	수자원	자연배수체계시설 도입	5.04	5.32	4.73	5.14	2.648
		빗물활용시설 설치	5.11	5.28	4.96	5.11	0.681
보존 및 보전	문화보존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5.91	6.32	5.60	5.80	7.125**
		훼손된 역사문화자원 복원	5.50	5.74	5.33	5.43	1.785
		생태·문화자원의 DB 구축	5.51	6.06	5.11	5.34	8.896**
	경관보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형태,재료,색채 도입	5.24	5.24	5.25	5.23	0.004
		산지, 바다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설정	5.39	5.60	5.20	5.40	1.242
도서의 특성이 담긴 해양경관 보전	5.78	6.16	5.64	5.46	4.776*		
관광 자원 화	문화자원	갯벌, 식생 등을 활용한 생태프로그램	5.48	5.82	5.24	5.37	2.576
		생태자원을 이용한 도보및트레킹프로그램	5.29	5.24	5.27	5.37	0.110
	경관자원	일출, 일몰 등 자연경관	5.42	5.46	5.47	5.29	0.280
		기암괴석, 절벽, 구릉지 등 지형경관	5.57	5.50	5.67	5.51	0.321
		산세, 숲, 계곡 등 산지경관	5.37	5.34	5.42	5.34	0.055
해변, 모래, 갯벌 등 해양경관	5.68	5.92	5.60	5.46	1.565		
기반 시설	문화시설	여가활동을 위한 휴양시설 마련	5.10	5.04	5.20	5.03	0.243
		도서특성에 적합한 문화시설 건립	5.14	5.48	4.96	4.91	2.701
		도서의 독특성을 담은 편의시설 배치	5.06	5.36	4.91	4.89	2.069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건립	4.89	4.94	4.93	4.74	0.247
	경관시설	수변감상을 위한 전망데크 조성	5.05	4.78	5.15	5.29	1.520
		바다와 연계한 산책로 및 광장 조성	5.41	5.60	5.29	5.34	0.880
		안전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4.94	5.00	4.73	5.17	1.179
쾌적성 및 편의성을 위한 어항시설 정비	5.08	5.06	5.11	5.06	0.022		

\* p<0.05, \*\* p<0.01

표 3. 전공분야별 평균 차이

중분류	소분류	세부 요소	평균	도시 해양	문화 관광	생태 환경	도시 계획	F
토지 이용	생태공간구조	기존 지형 보존 최대화	5.70	5.36	5.77	5.83	5.76	0.735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 고려	5.36	5.08	5.67	5.09	5.44	1.603
		경사도, 표고, 녹지자연도 등 고려	5.33	5.00	5.57	5.13	5.42	1.472
		일조량, 채광 고려	5.11	4.80	5.60	4.96	5.06	2.330
	생태환경보존	기존 산림·해안의 원형 보존	5.85	5.64	5.97	5.74	5.92	0.572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고려한 식재	5.53	5.16	5.63	5.52	5.63	1.081
		향토 수종 및 자생종 식재	5.56	5.24	5.73	5.57	5.61	0.942
		생태 연결로 확보	5.34	5.28	5.80	5.00	5.27	2.356
		생물 서식지 확보	5.41	5.08	5.87	5.57	5.27	2.825
		생태환경조성	Green-Blue 네트워크 조성	4.96	4.92	5.00	4.70	5.05
교통 체계	녹색교통	자전거 도로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4.64	4.48	4.43	5.09	4.65	0.999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 설치	4.58	4.44	4.20	5.43	4.50	3.590*
	보행공간	보행자전용지구 및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4.76	4.56	5.13	4.83	4.63	0.912
		보행자 도로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4.80	4.48	4.87	4.91	4.85	0.432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태양열 에너지 시스템 도입	5.14	5.00	5.27	4.74	5.27	0.908
		풍력에너지 시스템 도입	4.83	4.60	4.93	4.87	4.85	0.254
	에너지절약	자연채광 확보	5.51	5.12	5.87	5.22	5.61	2.066
		건물 녹화	4.74	4.36	5.20	4.83	4.63	1.896
		절수기기 설치	4.86	4.76	4.83	5.61	4.65	2.667
		자동절전시스템 도입	4.85	4.56	4.90	5.30	4.77	1.152
자원 순환	수자원	자연배수체계시설 도입	5.04	4.96	5.37	5.04	4.92	0.756
		빗물활용시설 설치	5.11	4.72	5.53	5.26	5.02	1.815
보존 및 보전	문화보존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5.91	5.56	6.20	6.04	5.85	1.952
		훼손된 역사문화자원 복원	5.50	5.40	5.67	5.57	5.44	0.355
		생태·문화자원의 DB 구축	5.51	5.36	5.87	5.48	5.40	1.093
	경관보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형태,재료,색채 도입	5.24	4.60	5.60	5.35	5.29	3.037*
		산지, 바다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설정	5.39	4.76	5.50	5.65	5.50	2.567
		도시의 특성이 담긴 해양경관 보전	5.78	5.56	6.03	5.83	5.73	0.844
관광 자원화	문화자원	갯벌, 식생 등을 활용한 생태프로그램	5.48	5.52	5.37	5.70	5.44	0.283
		생태자원을 이용한 도보맷트레킹프로그램	5.29	5.36	5.10	5.61	5.23	0.759
	경관자원	일출, 일몰 등 자연경관	5.42	5.16	5.47	5.61	5.44	0.560
		기암괴석, 절벽, 구름지 등 지형경관	5.57	5.32	5.77	5.83	5.48	1.087
		산세, 숲, 계곡 등 산지경관	5.37	5.20	5.63	5.48	5.27	0.679
기본 시설	문화시설	해변, 모래, 갯벌 등 해양경관	5.68	5.48	5.83	5.96	5.58	0.846
		여가활동을 위한 휴양시설 마련	5.10	5.16	4.70	5.43	5.15	1.383
		도서특성에 적합한 문화시설 건립	5.14	5.36	5.10	5.52	4.92	1.460
		도시의 독특성을 담은 편의시설 배치	5.06	5.16	5.27	5.26	4.85	1.010
	경관시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건립	4.89	4.80	5.53	5.13	4.52	4.209* *
		수변감상을 위한 전망데크 조성	5.05	5.04	4.37	5.22	5.32	3.341*
		바다와 연계한 산책로 및 광장 조성	5.41	5.32	5.20	5.83	5.40	1.186
		안전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4.94	4.80	4.97	5.22	4.87	0.439
		쾌적성 및 편의성을 위한 어항시설 정비	5.08	5.20	4.93	5.30	5.02	0.428

\* p<0.05, \*\* p<0.01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생태문화적 재생 요소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전문가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문가 집단간 중요도 인식에 대한 차이를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직업분야, 전공분야로 비교하였다.

첫째, 직업분야의 중요도에서는 토지이용분야의 생태공간구조·생태환경보존과 보존 및 보전분야의 역사문화보존에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토지이용분야는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요소에서 직업별 인식 차이가 있었다. 도시지역을 개발할 때, 토지이용부문은 학계와 공공기관 간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전공분야는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 설치, 건물의 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에서 중요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건축물부문과 자원순환부문은 전문가 집단간 중요도 인식의 차이가 없었다. 도시지역은 계절에 따라 에너지 수요량과 물 소비의 변화가 매우 크다. 따라서 건축물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절약 방안, 수자원 확보 방안에 대해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넷째, 관광자원화부문은 전문가 집단간 중요도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독특한 문화자원과 경관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어 관광객을 도시지역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지역자원의 보존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기반시설부문에서는 전문가 집단 동일한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지역에는 해변, 갯벌의 해양경관뿐만 아니라 기암괴석, 절벽의 지형, 산세, 숲의 산지 등의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도시지역의 문화적 재생을 위해서는 생태·문화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마련이 중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도시지역의 생태·문화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태자원의 보존과 전통적인 문화자원의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구본현, 2010, 도시중심부 공원의 친환경성 내재화 방안 연구 : 서울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논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한국 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제이플러스 애드.
- 국토연구원, 2009, 수변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
- 국토해양부, 2008,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국토해양부, 2009, 중부권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국토해양부, 2011, 경인권 탄소저감형 해양관광기반시설 계획기법 연구.
- 김선중, 2008,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관광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석사학위 논문.
- 김성귀, 2004, 해양관광론, 현학사.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도시개발론, 보성각.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 도시계획론, 보성각.
- 대한주택공사, 2007, 문화공간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08,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평가모델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 2009,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 박소연, 2010, 자연친화형 해양관광단지의 계획요소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논문.
- 박소연·신선미·변병설, 2009, “경인권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의 특성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Vol. 43 No. 4, pp. 587~597.

박현신, 2010,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신도시 계획지표 개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학위 논문.

변병설 · 전하나, 2008, “인천 도서지역의 해양환경자원과 관리실태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 11 No. 4, pp. 618~63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도시재생정책의 국제 비교 연구: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양희은, 2010, 연안마을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를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대학원 조경학 석사학위 논문.

염미경, 2000, “도서지역의 활성화 정체성 정치: 일본 미이라쿠의 역사마을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4집 pp. 747-782.

정석중 · 이미혜, 2004, 해양관광론, 대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해양 관광개발 사례 연구: 국내외 관광개발 사례 연구(I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수산시설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구성에 관한 연구.

한무영, 2009, 신도시의 빗물이용계획 사례: 행정

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세미나 자료.

홍선기, 2007, “도서해양의 생태·문화자원의 활용과 지역 활성화”, 농촌계획 Vol. 13 No. 3 pp. 61~72.

황상규, 2009,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신도시 녹색교통체계 구축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세미나 자료.

Baum, T., 1997, The fascination of islands: A tourist prospective. In D. G. Lockhart & D. Drakakis-Smith(Eds.), Island tourism: Trends and prospects, London: Pinter, pp.21~35.

Davoudi · Crawford · Mehmood, 2009, Planning for Climate Change, Earthscan, London.

Roberts Peter · Sykes H, 2000,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London: Sage Publication.

Tolley, Rodney, 1990, The hard road: The problems of walking and cycling in British cities, The Greening of Urban Transport, London : Belhaven Press.

- 논문접수일 : 2011년 10월 10일
- 심사의뢰일 : 2011년 10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12월 27일